고흥군, 전략작물·벼 면적 조정 연계해 '쌀값 안정'

벼 감축 목표 면적 1378ha
올해부터 간척지 재배 금지
전략작물직불사업 접수 중
깨 신규·밀 단가 인상 지급

고흥군이 쌀값 안정을 위해 전략작물직불금 및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과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연계해 시행한다.

18일 고흥군에 따르면 벼 재배면적 조정제는 쌀값 안정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전남도에서 시군별 벼 재배감축 목표 면적을 배정하고, 지자체별 감축 계획에 따라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들이 감축 계획에 참여해 벼 재배면적을 줄이는 제도다.

군은 당초 농업인들에게 벼 재배감축 면적을 일괄 부과해 조정제를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농업인의 부담 가중 및 현장 의견 등을 수용해 지자체에 감축 면적을 할당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추진한다.

고흥군의 감축 목표 면적은 1378ha로, 세부 감축유형은 농지전용, 친환경 인증, 전략직불, 자율감축, 간척지 등으로 분류된다. 벼 재배 농가 전체 대상이 아닌 감축 유형별로 농가의 자율 신청을 받아 조정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고흥만 간척지는 농림부와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지로, 정부가 수립한 '제2차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종합계획'에 따라 올해부터 벼 재배가 금지된다.

이에 따라 조사료 등 타작물 재배로 전환될 예정이며 고흥군 벼 재배감축 목표 면적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고흥군은 고흥만 간척지를 활용해 60~70만 평의 대규모 '고흥형 농수축산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조성·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고흥군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식량자급률 증진과 쌀 수급 안정을 위해 2025년 전략작물직불사업 신청·접수를 시작한 바 있다.

동계작물은 오는 3월31일까지, 하계작물은 5월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농업인은 작물별 신청 기간 내 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사무소 산업팀에 신청해야 한다.

전략작물직불제는 논(1000㎡ 이상)에서 벼 대신 전략 작물을 단작 또는 이모작하는 농업인에게 국비 100%로 품목별 직불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하계작물의 경우 가루쌀·두류는 ha당 200만원, 식용 옥수수·깨는 ha당 100만원의 직불금이 지급된다.

동계작물의 지원 단가는 밀 ha당 100만원, 기타 작물 ha당 50만원이며, 밀과 조사료(동계작물), 두류와 가루쌀(하계작물)을 이모작할 경우 ha당 100만원의 인센티브가 추가로 지급된다.

올해부터 하계작물에는 깨가 신규 품목으로 추가돼 기존 하계조사료의 단가가 ha당 43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상됐다. 동계작물 역시 밀 단가가 ha당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돼 오는 12월에 지급될 예정이다.

고흥군 관계자는 "밥쌀용 쌀의 과잉생산으로 인한 가격 하락을 방지하고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논에 벼 대신 타작물 재배를 확대하는 사업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고흥=심정우 기자

여수시, 시민평가단 모집
음식점 위생·친절도 등 점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대비

여수시는 오는 21일까지 음식점 위생 및 친절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시민평가단 15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18일 여수시에 따르면 시민평가단은 일반 고객으로 가장해 월 1회 이상 음식점을 방문·이용한 후 위생, 친절도, 맛, 부당요금 등을 점검하고 칭찬과 개선사항 등을 작성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활동기간은 오는 3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약 2년간이며, 19세 이상 시민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1회당 1만 5000원(월 최대 3만원)의 활동비가 지급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여수시보건소 2층 식품위생과를 방문하거나 팩스, 등기우편 등으로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시민평가단 점검 결과를 영업주에게 전달, 음식점에서 자발적으로 위생상태와 친절도를 개선하도록 유도해 부적합 평가업소를 중점 관리할 계획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시민평가단의 활동은 음식점 위생·친절 수준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며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에 대비해 시민평가단의 컨설팅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여수=이경기 기자

장흥군, 농촌 빈집정비사업 추진
최대 300만원 지원

장흥군이 2025년 농어촌 빈집정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빈집정비사업은 주변경관 저해 또는 붕괴·화재발생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철거해 마을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1년 이상 사용되지 않은 관내 주택이며, 빈집 소유자가 해당 주택을 철거하고자 할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지원사업을 통해 빈집 철거 시 최대 300만원이 지원되며, 지원금은 건축물 해체 비용의 10%를 소유자가 부담하는 조건 하에 지급된다.

빈집 소유자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준비해 오는 28일까지 빈집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원비 지급은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빈집 소유자가 건축물을 철거하고 철거가 완료된 후 관련 정산서류를 제출하면 장흥군에서 검토 후 지급한다. 자세한 사항은 장흥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장흥=김전환 기자

순천시, '복지등기 우편서비스'로 위기가구 지원

순천시는 최근 순천우체국과 '복지등기 우편서비스'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집배원의 방문을 통해 기존 복지제도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소외계층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복지등기 우편서비스로 단전, 단수, 공과금 체납 등 위기 징후가 포착된 가구에 집배원이 직접 방문함으로써 주거 및 생활 상태를 점검하고, 해당 정보는 담당 부서에 전달돼 취약 가구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활용할 예정이다.

또 집배원 방문 시 복지 정보가 담긴 안내문을 전달해 복지제도에 대한 홍보 효과도 제고한다.

양 기관은 지난 10일 협약을 맺고 매월 200세대의 복지 사각지대 가구를 대상으로 복지등기 우편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시는 올해 총 2000세대 이상의 위기가구를 점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순천시 '복지등기 우편서비스'를 통해 집배원이 한 주민에게 복지 정보가 담긴 안내문을 전달하고 있다. 순천시 제공

순천시 관계자는 "바쁜 현업 속에서도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을 살피는 데 협조해 주신 순천우체국 관계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시는 순천우체국 집배원 101명을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하고 지역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이웃 지킴이로서의 활동에 감사를 표했다.

순천=배서준 기자

보성군, 농촌 주택개량사업 실시
26일까지 방문 신청

보성군은 농촌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민 유입 촉진을 위해 '2025년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2025년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노후화된 농촌 주택 개량 및 신규 주택 건축 비용을 주택과 토지 등을 담보로 시중보다 저렴한 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자는 △본인 소유 주택을 개량하려는 농촌 거주자 △농촌 정착을 희망하는 무주택자(배우자, 세대원 포함)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하려는 자 △내·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숙소를 제공하고자 하는 기업이나 개인 등이다.

사업 대상 주택은 부속건물을 포함해 연면적 150㎡ 이하의 단독주택이며, 신축의 경우 최대 2억5000만원, 증축 및 대수선은 최대 1억5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고정금리(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상환 조건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방식 중 선택 가능하다. 또 대출 만기 전 중도상환이 가능하며 중도상환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올해 보성군 배정 물량은 총 27동으로, 사업을 희망하는 주민은 오는 26일까지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면사무소)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보성군 관계자는 "올해는 예산 감소로 인해 배정된 물량이 작년에 비해 줄어든 만큼 신청을 희망하는 주민들은 신속히 접수해 주시길 바란다"며 "이번 농촌주택개량사업으로 건축주의 경제적 부담은 줄이고,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및 농촌인구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 말했다.

보성=양종수 기자

내년도 농림축산식품 국고사업
구례군, 27일까지 접수

구례군은 오는 27일까지 '2026년 농림축산식품분야 국고보조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18일 구례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와 산림청이 주관하는 주요 지원사업으로, 농촌·공동체, 식량, 원예작물, 유통, 축산, 농생명산업, 임업 분야, 융자 사업 등 총 153개 사업을 포함한다. 주요 사업 외에도 신규 사업 신청이 가능해 다양한 지원이 기대된다.

사업 신청 대상은 농업인, 임업인, 생산자단체 등 개인과 법인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농림사업정보시스템 또는 구례군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해 각 읍면 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은 접수된 사업에 대해 사업성 검토 및 심사를 거쳐 우선순위를 정한 후, 심의회를 거쳐 오는 3월 초 전남도에 2026년 국비 예산을 신청할 계획이다.

구례=김상현 기자

순천시, 소규모 다중이용시설 이동경사로 지원 사업 실시
300㎡ 미만 식당·카페 등

순천시는 장애인 등 이동약자가 소규모 다중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식 경사로 무료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설치 대상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상 편의시설 설치 의무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바닥면적 300㎡ 미만의 소규모 다중이용시설이다.

시는 올해 총 20개소 내외의 시설에 이동식 경사로를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식당, 카페, 이·미용실 등 이용 빈도가 높은 시설을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설치를 희망하는 사업주는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임대차 계약서 등을 구비해 오는 3월14일까지 시청 가족복지과(061-749-6279) 또는 사업장 소재지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단 3cm 높이의 문턱도 이동이 불편한 보행 약자에게는 사회참여를 제한하는 높은 장벽이 될 수 있다"며 "이동경사로 설치 사업이 장애인, 노인, 어린아이 누구라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다닐 수 있는 보행환경을 조성해 이들의 사회참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시는 지난 2023년도부터 지난해까지 일반음식점, 카페, 미용실, 소매점 등 총 55개소에 이동경사로를 설치해 보행약자의 생활편의를 개선했다.

순천시가 소규모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이동식 경사로 무료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순천시 제공

순천=배서준 기자